

‘형제농장’-김규철(김민수)농가

대를 이은 한우 지킴이

전북지소과장정희진

형제농장은 자연 순환농업으로 생산된 ‘장수한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전북 장수군 빈암면 소재의 한우농가(대표 김규철·김민수, 1.063 353 3156)이다. 장수군에서도 고급육 사육에 선두로 앞장서는 농장으로 사육두수는 220두로, 번식우 30%, 거세우 70%이다.

향후 500두 이상 사육과

육질 1등급 이상, 100% 목표

한우사육을 시작하지 30년째로 빈암이 고향인 김규철님은 지역에서 20여두의 한우사육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한우사육에 전념했고 장수군에서 자체개발한 ‘장수한우IMR 사료’의 급여 프로그램으로 ‘장수한우’의 고급육 육성에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장수군에서 4~5개월령의 우량혈통등록수 송아지를 입식후 6개월령에 거세를 실시해 ‘장수한우IMR 사료급여 프로그램’에 맞추어 18개월이상 육성과 비육전기사육을 실시하고, 6개월이상의 후기치리를 거친 720kg 이상의 거세우만을 출하하여 육질 1등급과 육량 A등급준현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주력할 터

현재는 2동의 시설에서 다시 2동을 신축하는 작업을 통하여 향후 500두 이상 규모의 한우 사육단지 육성을 목표로 사육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규철님의 삼남인 김민수님의 남다른 한우 사육에 대한 열정이 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시작한 한우육성 사업이 지금은 다른 형제까지도 도움 정도로 한 규모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 향후 ‘형제한우작목반’을 구성하여 한우육성의 중심점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본받을 만하다. 또한 ‘해군육종연구회’로부터 암소 개량의 중요성을 알게 돼 고급육 생산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사양기술 정보 획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초음파기기를 활용해서 양관리, 출하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2006년도 형제농장 거세우 등급판정결과(1~9월)

등급	1 ⁺⁺	1 ⁺	1	2	3	계
두수	8	13	12	15	2	50
출현율(%)	15.4	26.9	23.1	28.9	5.7	100
전국(%)	7.9	14.7	21.2	23.8	31.8	100
전국대비	7.5	12.2	1.9	5.1	-26.1	-

